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5	2	3	3	2	4	5	5	5
6	4	7	3	8	3	9	3	10	4
11	3	12	2	13	5	14	1	15	4
16	5	17	2	18	4	19	5	20	3
21	2	22	3	23	4	24	4	25	4
26	3	27	4	28	3	29	1	30	4
31	2	32	1	33	2	34	4	35	3
36	4	37	4	38	2	39	3	40	5
41	4	42	2	43	3	44	3	45	1

해설

[1-3] 화법 (연계 지문 : 수능 특강 90쪽)

1.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⑤ 강연자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버스 전용 차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출처를 밝힌 것이며, 이를 통해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청중과 공유했던 특별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강연 내용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말의 높낮이, 크기, 빠르기, 분위기 등을 말한다.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준언어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강연 내용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청중의 강연 중 질문 내용을 이해한다.

③ 강연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실선과 달리 일반 차량의 진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을 말하는데요, 차선 변경 및 건물 출입을 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물론 주행 목적으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강연자는 청중의 질문에 앞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가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된다고 언급하며 실선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강연자의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으로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 중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 ㉡는 ㉢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강연자의 답변 내용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에 칠해진 '청색'의 의미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강연자의 답변 내용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라면 차선 변경 및 건물 출입을 할 때만 일시적으로 일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를 주행한 일반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지 않다는 질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강연자의 답변 내용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에 일반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을 실선으로 표시한 이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강연자의 답변 내용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도를 다니는 버스가 일반 차량의 동선과 어떤 경우에 겹치는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②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언제나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버스 전용 차보다 버스의 통행 보장이 잘 되겠군.'이라는 반응은, 강연자가 강연에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그래서 버스의 통행권 보장 효과가 다른 버스 전용 차도에 비해 매우 탁월한데요.'라고 언급한 내용을 재정리하여 이해한 것이다.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면서 들은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신 것 같군.'이라는 반응을 볼 때, 청중이 강연자의 강연 준비 상황을 추측하면서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버스 전용 차도가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는 반응을 볼 때, 청중이 강연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버스 전용 차도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해 주었으니, 그 뒤에서는 각 버스 전용 차도의 특징을 설명해 주겠군.'이라는 반응을 볼 때, 청중이 강연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면서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도는 평일에만 운영된다고 생각했는데, 중앙 버스 전용 차로처럼 휴일에도 운영되는군.'이라는 반응을 볼 때, 청중이 강연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면서 들었음을 알 수 있다.

[4-7] 작문·화법

4.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⑤ (가)의 4문단에서 '햇살 같은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포부와 다짐을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햇살 같은'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성장배경과 가정환경을 드러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는 나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활용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2문단에서 동아리 활동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대회 수상 경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는 이전에 국제 교류에 참여한 경험이 언급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출제의도] 교차쓰기의 기준을 파악한다.

⑤ <보기>의 네 번째 문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 부분은 [A]에서 삭제되었으나, [A]에 필자의 성격의 장단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예화가 제시된 부분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공동체 활동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이 [A]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대인관계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최근의 사례인 '우정상 수상'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는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A]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는 필자의 성격을 '꿈'과 연결하여 진술하고 있지만, [A]에서는 필자의 성격을 지원하는 곳과 연결해 참가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한다.

④ '피면접자'가 '면접자'가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이 앞서 발언한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면접자'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면접자는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 체력에는 자신 있다는 말이군요."라며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진술하고 적절하다. ② '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면접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자기소개서에~적하 있는데"라는 발언과 함께 질문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피면접자'의 네 번째 발화의 첫 번째 문장에서 '피면접자는 "평화순례를 하려면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라고 되묻고 있다. 이로써 '면접자'의 의도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면접의 질문 유형을 파악한다.

③ [B]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묻고 있으므로 '문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에서는 순례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고 있으므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C]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이지만, [B]는 '갈등 상황의 원인을 묻는 질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B]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C]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C]는 '지원자가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B]는 '지원자가 미리 약속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B]는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C]는 '지원자의 공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8-10] 작문 (연계 지문 : 수능 특강 279쪽)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③ 1문단을 의하면,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극장에서 다양한 영화를 보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생겨난 제도이므로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관객이 받고 있는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스크린 상한제가 극장이 받고 있는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그와 함께 스크린 상한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을 보면, 스크린 상한제는 대형 흥행 영화가 스크린을 독차지하는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지녔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을 보면,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확보하려는 스크린 상한제가 오히려 관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을 보면, 스크린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이 갖춰지는 것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한 방식을 파악한다.

③ ㉠은 스크린 상한제가 실시되면 인기가 높은 영화에 대한 관객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스크린 상한제로 인기가 높은 영화의 상영 횟수를 규제한다고 해서 관객이 다른 영화를 선택하여 보지 않는다는 점을 (나)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는 설문 조사 결과 영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스크린 상한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를 1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크린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극장에서 다양한 영화를 보기 어렵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② ㉢은 스크린 상한제가 실시되면 관객이 보고 싶은 영화를 관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를 2문단에서 구체화하여, 스크린 상한제가 인기가 높은 영화의 상영 비중을 축소시키므로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④ ㉣은 대형 흥행 영화가 극장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를 3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크린 상한제로 인해 극장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⑤ ㉤은 스크린 상한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 중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선택하여, 5문단에서 스크린 상한제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10. [출제의도]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박 내용을 파악한다.

④ 글쓴이는 5문단에서, 대형 흥행 영화의 상영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좌석 판매율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제시한 '질의 검증'에 따라 글쓴이의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2문단에서, 스크린 상한제로 인해 알표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유로 스크린

상한제가 실시되면 인기가 높은 영화를 예매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스크린 상한제로 인해 압표 거레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② 스크린 상한제는 대형 흥행 영화의 상영 비중을 줄이는 것이므로 약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문단을 보면 스크린 상한제가 비상업 영화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크린 상한제가 상업영화에 약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에 대해 비상업 영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없다. ③ 글쓴이는 3문단에서, 시장경제에서 특정 상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상품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스크린 상한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스크린 상한제는 대형 흥행 영화의 상영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스크린 상한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스크린 상한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형 흥행 영화의 상영 비중을 제한한다는 것과 상충된다고 지적할 수 없다. ⑤ 글쓴이는 4문단에서, 인기가 높은 상업영화의 상영 횟수를 규제하면 해당 영화의 상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주장이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활용한 것임은 확인할 수 없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의 시제를 파악한다.

③ '그녀는 회사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에서 '바쁜'은 형용사이며, 이때 관형사형 어미 '-느'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번호는 그가 범인이라고 굳게 믿는다.'에서 '믿는다'는 동사이며, 이때 선어말 어미 '-는'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경보음이 울리던 달리던 차들도 서야 한다.'에서 '달리던'은 동사이며, 이때 '-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④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운동장으로 가렴.'에서 '있을'의 '-을'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⑤ '외모가 닮은 쌍둥이조차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에서 '다르다'는 형용사이며,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 없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시제 체계에 따른 용언들의 활용형을 파악한다.

[A]에서 설명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중세 국어	동	사용 X 또는 '-더-'	'-느-'	'-(으)리-'
	형	'-더-'	사용 X	
근대 국어	동	사용 X 또는 '-더-', '-았/었-'	'-느-', '-는/느-'	'-(으)리-', '-겠-'
	형	'-더-'	사용 X	

② '버리다(버리다)'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버리더' 또는 '버리더라', 현재 시제는 '버리느다', 미래 시제는 '버리리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근대 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버리다' 또는 '버리더라' 또는 '버리었다', 현재 시제는 '버리느다' 또는 '버리다', 미래 시제는 '버리리라' 또는 '버리겠다'로 나타났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곤하다(갈다)'는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의 과거 시제는 '곤하더라', 현재 시제는 '곤하느다'로 나타났을 것이다. ③ '맛나다(만나다)'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근대 국어에서 현재 시제는 '맛난다'로 나타났을 것이다. ④ '우짚다(우짚다)'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에서 현재 시제는 '우짚느다', 미래 시제는 '우짚으리라'로 나타났을 것이다. ⑤ '알포다(아프다)'는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근대 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알포더라', 현재 시제는 '알포다'로 나타났을 것이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유형을 파악한다.

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파열음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이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ㄴ첨가', '순행적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파열음화)'이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파열음화)', 'ㄴ첨가', '비음화'이다. 따라서 ㉠~㉢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파열음화)'이 일어난다. 따라서 '음절말 위치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가짓

수가 제한되는 음운 변동을 겪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ㄴ첨가'가 일어나므로 원래는 없었던 음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만 ㉡에서는 음운 첨가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및 ㉢의 조성에 동화되어 앞말의 종성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은 '역행동화'이다. ㉢에서는 역행동화인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에서는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 일어나는 자동동화인 '순행적 유음화'와 ㉢에서 일어나는 자동동화인 '비음화'는 모두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는 앞말의 종성에 영향을 받아 뒷말의 초성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에서는 앞말의 종성에 영향을 받아 뒷말의 초성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에서는 앞말의 종성에 영향을 받아 뒷말의 초성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에서 일어나는 ㄴ첨가는 뒷말의 초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첨가되는 것이므로 해당 진술에 적합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부정 표현의 특징을 파악한다.

① ㉠의 '안'은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는 단순한 사실을 부정한 것이 맞지만, ㉡의 '못'은 주체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쓰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 따르면 부정부사 '못'은 형용사와 결합할 때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데, '견디다'는 형용사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의 선행절에 있는 '않았'을 '못했'고 바꾸면 '현아는 청소를 하지 못했'고 되어 문장이 성립한다. 그리고 ㉢의 후행절에 있는 '안'을 '못'으로 바꾸면 '*청소는 오늘 학교에 못 가려고 한다.'가 되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다. 참고로 '려고'는 의도나 의지의 의미를 지닌 어미이므로 '못'과 결합하지 못한다. ③ ㉠의 '않았'은 '현아가 청소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주체의 의지 부정이 둘 가능하다. 그리고 ㉡의 '안'은 의도나 의지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 '려고'와 결합한 용언을 부정하므로 주체의 의지만을 부정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의 '못했'은 주체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의 '못해서'는 상황어 어의지 못함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⑤ ㉠의 선행절에 있는 '못'을 '안'으로 바꾸면 '*그는 한 시간도 안 견디고 항복했'고 되어 비문이 된다. 그 이유는 '견디다'라는 용언이 주체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 부정문을 쓸 수 없다. 반면 ㉢의 선행절에 있는 '못해서'를 '않아서'로 바꾸면 '잘 견뎌 고양이가 견디 않아서'가 되어 문장이 성립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담화 속에 쓰인 단어의 품사를 파악한다.

④ 사회의 첫 번째 발화에서의 '오늘'은 격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명사이고, 사회의 두 번째 발화에서의 '오늘'은 용언을 수식하는 점에서 부사이다. 민수의 첫 번째 발화에서의 '만큼'은 대명사나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조사이고, 사회의 세 번째 발화에서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점에서 '명사(의존 명사)'이다. 민수의 첫 번째 발화에서의 '어디'는 조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대명사이고, 민수의 세 번째 발화에서의 '어디'는 독립적으로 쓰이며 놀람이나 느낌의 의미를 지니는 데에서 감탄사이다. 사회의 첫 번째 발화에서의 '다섯'은 후행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개'를 꾸며준다는 점에서 관형사(수 관형사)이고, 민수의 두 번째 발화에서의 '다섯'은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수사이다. 민수의 두 번째 발화에서의 '굳어'와 사회의 마지막 발화에서의 '굳어'는 모두 동사이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된 단어는 '굳어'를 제외한 '오늘', '만큼', '다섯', '어디'이다.

[16-21] 독서(인문) 미적 판단의 정당성(연계 지문: 수능 특강 28쪽)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⑤ 이 글은 미적 판단에 대해 '비인지주의 이론', '인지주의 이론' 등의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한 후 이들을 통해 미적 판단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인지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예를 비평과 관련된 이론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시대순으로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미적 판단의 정당화와 관련

된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각 이론들이 가진 미적 판단으로 인한 불일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은 예를 비평 이론들의 특징을 설명한 후 불일치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에서 각 비평 이론에 대한 이론가들을 언급하는 하였지만, 이들의 영향 관계를 제시하거나 인과적 설명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② 이 글은 비인지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적절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 판단이 따르는 규범이 적절함을 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들의 불일치를 어떤 규범들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인지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이론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진위에 관해서 논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품의 하위 요소 등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의 진위에 관해 논쟁할 때 언급되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이 글은 미적 판단이 어떻게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진술이 될 수 있는지를 인지주의 이론과 비인지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이 합리적으로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다. ④ 이 글은 미적 불일치가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평가의 미적 감수성이 변함에 따라서 비평가가 자신의 미적 판단을 철회 및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를 비평에서 비평적 논쟁을 통해서 비평가가 자신의 미적 판단을 철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다. ⑤ 이 글은 인지주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미적 속성에 대한 설명 및 그러한 속성들의 사례로 아름다움, 우아함, 조화로우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를 비평에 참여하는 비평가들이 개별 작품을 평가하면서 부여하는 미적 속성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작품의 하위 요소들을 지각하더라도 이를 미적 속성으로 구성하는 미적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적 속성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과 달리, 작품에 부여되는 미적 속성은 작품의 하위 요소들을 지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비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이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호불호의 태도를 표현하는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3문단에 따르면, 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이 작품에 미적 속성을 부여하는 명제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과 달리, 미적 판단이 개별 작품에 대한 판단 주체의 선호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는 서술은 옳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감상 규범의 적절성은 객관적으로 파악되며, 규범이 적절한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반면 3문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적 불일치의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의 적절성을 작품의 하위 요소를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은 ㉡과 달리,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따르는 보편적인 규범이 적절하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서술은 옳다. ③ 2문단의 5번째 줄에 따르면, 비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 내용의 진리치에 관한 논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특정 미적 판단을 참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3문단의 4번째 줄에 따르면, 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이 참이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나타내는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 주는 미적 사태가 필요하고, 또 그 미적 사태를 경험하는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가진 '적절한 감상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은 ㉡과 달리, 미적 판단이 참이 되기 위한 근거는 미적 감수성을 갖춘 적절한 감상자의 미적 사태라고 주장한다는 서술은 옳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비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불일치의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적절한지를 규범의 적절성을 바탕으로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의 진위를 따지는 것을 통해서 상반되는 미적 판단 중 적절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과 ㉡ 모두, 미적 불일치의 상황에서 두 미적 판단 중 어떤 미적 판단이 적절한 판단인지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서술

은 옳다.

19. [출제외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㉓ 1문단에 따르면, 미적 판단은 “X는 아름답다”는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5문단에서 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의 진위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맥팔레인의 정교한 인지주의 이론이 이러한 발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발화 맥락에서는 “이 작품은 아름답다”는 발화가 참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판단의 진위를 판정하는 다른 맥락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미적 판단은 판단 주체의 미적 감수성의 변화 때문에 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리고 5문단에 따르면, 미적 불일치의 복잡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정교한 인지주의 이론이다. 그러므로 한 비평가의 미적 감수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미적 판단이 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5문단에 따르면, 발화 맥락 관련 사실과 판정 맥락 관련 사실에는 발화자의 미적 감수성과 예술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판정 맥락 관련 사실과 맥락 관련 사실에는 발화자와 판정자의 미적 감수성에 관한 정보만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정교한 인지주의 이론은 인지주의 이론의 일종이며, 3문단에 따르면 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의 진리치에 관해서 논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의 진리치에 관해서 논쟁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한 판정 맥락과 발화 맥락을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도 지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참은 어떤 맥락의 사실들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판단 주체의 미적 판단의 참과 거짓에 대한 판정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같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 [출제외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㉓ 2문단에 따르면, 비인지주의 이론은 미적 판단이 판단 주체의 주관적 선호를 표현하며, 이러한 선호를 다른 사람도 갖도록 설득하는 진술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스크루턴은 같이 미적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주관적 선호를 드러내며 이 선호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표현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레빈슨에게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작품에서 인식하는 고차적인 지각으로, 아름다움, 우아함과 함께 조화로우음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기>의 값은 작품이 조화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레빈슨은 같이 작품에서 조화로우음이라는 고차적 인 지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품이 조화롭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고 보았을 것이다. ② 3문단에 따르면, 레빈슨에게 작품의 명도나 구도는 미적 속성의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작품의 하위 요소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는 이를 특정 방식으로 조합해야 미적 속성의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기>의 올은 작품의 구도와 명도를 바탕으로 작품이 조화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레빈슨은 올이 작품에서 조화로우음을 경험한 이유는 작품의 구도나 명도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④ 5문단에 따르면, 한 비평가의 미적 판단은 그 비평가의 미적 감수성을 고려하면, 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비평가의 미적 감수성을 고려하면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올은 같이 미적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맥팔레인은 이는 올의 판정 맥락에서 올의 미적 감수성을 고려한다면 같이 미적 판단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서로 다른 미적 감수성을 공유하는 복수의 비평가 집단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미적 불일치가 복잡하게 나타난다. 5문단에 따르면 맥팔레인의 이론은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갑과 을은 다른 시대의 미술을 공부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미적 감수성을 지닌 비평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맥팔레인은 갑과 을 모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비평가 집단에 속하므로 상반되는 미적 판단을 내린다고 보았을 것이다.

21. [출제외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㉓ 이 글에서 ‘따르다’는 관례나 유행, 명령 등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선지의 문장에서 ‘따르다’도 관례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두 문장에서 ‘따르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나타나다’는 생각이나 느낌 같은 내적 심리

가 외적인 형식, 얼굴 표정이나 발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선지의 문장에서 ‘나타나다’는 보이지 않던 대상이 나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두 문장에서 ‘나타나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글에서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이 있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선지의 문장에서 ‘생기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특정 모양으로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두 문장에서 ‘생기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이 글에서 ‘가지다’는 자기 것으로 하다, 소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선지의 문장에서 ‘가지다’는 모임을 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두 문장에서 ‘가지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선지의 문장에서 ‘내리다’는 위에 올려진 물건을 아래로 옮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두 문장에서 ‘내리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22~25] 독서(과학) 단원 변화(연계 지문: 수능 특강 154쪽)

22. [출제외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㉓ 지문에서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가 외부 공기와 열 교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단열 변화의 개념을 정의한 뒤, 2문단에서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 따라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지문에서 단열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단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여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단열 변화는 기류의 생성 원인을 언급한 뒤, 4문단에서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하다. ⑤ 지문에서 대기 중의 공기 덩어리에서 일어나는 단열 변화의 양상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외도] 글의 내용을 추론하여 파악한다.

㉓ 3문단에 의하면,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약 0.5℃씩 내려간다. 4문단에 의하면, 포화 상태인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이슬점은 100m당 약 0.5℃씩 낮아진다. 그러므로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감소하는 정도는 이슬점이 감소하는 정도와 동일하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의하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단열 가열될 때 외부 공기로부터 받은 열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② 3문단에 의하면, 건조 단열 감률은 지구상에서 꽤나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단열 냉각될 때에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를 것이므로, 평지보다 산악 지대에서 더 큰 폭으로 기온이 감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 의하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에 포함된 전체 수증기의 양은 변화가 없지만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절대 습도가 감소하게 된다. ③ 3문단에 의하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공기 덩어리의 내부에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응결이 일어날 때 수증기에 있던 습은열이 방출된다.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는 고도의 상승에 따른 기온의 하강 비율이 건조 단열 감률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24. [출제외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㉓ 기온이 24℃이고 이슬점이 16℃인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 A는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기온이 변한다. A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14℃가 되었을 때, 지표면에 있을 때에 비해 기온이 10℃ 줄어든 것이므로(100m당 1℃×10번) 이때 A는 고도 1,000m에 다다랐을 것이다. A가 고도 1,000m에 다다랐을 때 A의 이슬점은 2℃가 감소하여(100m당 0.2℃×10번) 14℃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고도 1,000m에서 공기 덩어리 A의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므로 구름이 생성될 것이며, A의 상승 응결 고도는 1,000m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가 상승하는 순간부터 내부의 수증기가 응결하지는 않는다. 구름이 만들어질 때 수증기가 응결하므로 A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높이에 이르러야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날 것이다. ② 불포화 공기 덩어리 A는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기온이 변할 것이므로 단열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단열 변화는 대기에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가 외부 공기와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온이 변하는 현상이다. ③ 2문단에 의하면, 대기에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상승할수록 기압이 낮아지며 그에 따라 부피가 커진다. 그러므로 A가 상승하여 고도 400m에 다다를 때 지표면에서보다 기압이 더 낮아지므로 외부 공기를 더 밀어낼 것이다(부피가 커질 것이다). ⑤ 3문단에 의하면, 대기에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부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응결이 일어난다. 또한 4문단에 의하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어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때, A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 구름이 형성될 것이다. 정답 해설에서 A의 기온이 14℃가 되었을 때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함을 확인했으므로, A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16℃가 될 때에는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25. [출제외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㉓ <보기>에 따르면, 산의 동쪽 해면 고도에 있는 기온이 15℃인 공기 덩어리 B가 고도 500m에 다다르자 구름이 만들어졌다.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아졌다는 뜻이므로, B가 500m 지점에 있을 때의 기온은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100m 5번×1℃=5℃가 감소하여 10℃일 것이고, 이때 B의 이슬점(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는 고도)도 10℃일 것이다. 그래서 B가 산의 동쪽 해면 고도에 있을 때의 이슬점은 100m 5번×0.2℃=1℃가 더해져서 11℃일 것이다. 즉, 산의 동쪽 지역 해면 고도에, 기온이 15℃이고 이슬점이 11℃인 공기 덩어리 B가 있었던 것이다. B보다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모두 5℃씩 더 높은 공기 덩어리는 기온이 20℃이고 이슬점이 16℃일 것인데, 500m에 다다랐을 때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100m 5번×1℃=5℃가 감소하여 15℃가 되고, 이슬점은 100m 5번×0.2℃가 감소하여 15℃가 된다. 즉, B보다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모두 5℃씩 더 높은 공기 덩어리도 B와 마찬가지로 고도 500m 지점에서 구름이 생성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불포화 공기 덩어리 B는 산의 동쪽 해면 고도부터 500m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기온이 감소할 것이므로 고도 500m에서의 B의 기온은 10℃이다. 고도 500m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포화 상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1,200m를 상승하는 동안 습윤 단열 감률에 따라 12×0.5℃=6℃만큼 기온이 감소하여, 산 정상인 1,700m에서 4℃가 된다. 산 정상에서 B에 포함된 수증기가 전부 비로 빠져나자 불포화 상태가 되었으므로 산 정상에서 산의 서쪽 해면 고도까지 1,700m를 하강하는 동안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17×1℃=17℃만큼 기온이 상승하여, 서쪽 해면 고도에서 21℃가 된다. B가 산 동쪽을 이동할 때 기온이 15℃에서 4℃로, 산 서쪽을 이동할 때 4℃에서 21℃로 변화했으므로 기온 변화폭은 산 동쪽을 이동할 때가 산 서쪽을 이동할 때보다 작다.

② 정답 해설 참조 ③ 산의 동쪽 해면 고도에 있는 공기 덩어리 B는 기온이 15℃이고 고도 500m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르므로 고도 500m에서의 B의 기온은 10℃이다. 이후 1,700m까지는 습윤 단열 감률을 따르므로, 고도 1,000m에서 B의 기온은 10℃에서 100m 5번×0.5℃=2.5℃가 감소하여 7.5℃가 되고, 고도 1,500m에서 B의 기온은 7.5℃에서 2.5℃가 감소하여 5℃가 된다. 고도 1,700m에서 B의 기온은 5℃에서 100m 2번×0.5℃=1℃가 감소하여 4℃가 된다. 이후 산의 서쪽에서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 B의 기온이 증가하므로, 고도 1,500m에서 B의 기온은 4℃에서 100m 2번×1℃=2℃가 증가하여 6℃가 되고, 고도 1,000m에서 B의 기온은 6℃에서 100m 5번×1℃=5℃가 증가하여 11℃가 된다. 고도 500m에서 B의 기온은 11℃에서 5℃가 증가하여 16℃가 되고, 해면 고도에서 B의 기온은 16℃에서 5℃가 증가하여 21℃가 되므로, B가 산의 서쪽 해면 고도에 도달할 때 서쪽 해면 고도에서의 B의 기온은 20℃보다 높다. ⑤ B와 기온은 같은데 이슬점이 8℃ 더 낮은 공기 덩어리는 기온이 15℃이고 이슬점이 3℃일 것이다. 이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이 0℃가 되는 고도는 1,500m임이, 이때 공기 덩어리의 기온도 0℃가 될 것이다. 즉, B와 기온은 같은데 이슬점이 8℃ 더 낮은 공기 덩어리는 고도 1,500m에서 구름이 만들어져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이때부터는 습윤 단열 감률에 따라 기온이 하강할 것이다.

[26~30] 독서(사회) 대손상각비의 회계 처리 방법(연계 지문: 수능 특강 20쪽)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③ 매출채권잔액비율법에서는 대손율을 전기 대손발생액을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그러므로 전기 대손발생액과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에 따라 대손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회사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매출채권의 회수 불능이 확정되고 대손이 발생한다. ② 직접법에서는 대손이 발생하면 그와 동시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한다. 즉 대손이 발생한 시점과 동시에 비용이 발생한다. ④ 경과기간분석법은 매출채권잔액비율법과 마찬가지로 대손발생액을 추산하기 위해 대손추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대손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전기 매출채권 경과기간에 따라 대손율을 추정하는 것이 그 정확도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정이므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대손을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 수 있을 것이다. ⑤ 저문에서 대손추산액의 책정에 따른 기업의 손익 영향에 대해 다루면서 특히 이에 민감히 반응하는 은행을 예시로 대손추산액 책정에 따라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는 대손추산액의 대소에 따른 금융 안정성 저해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대손추산액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금융 안정성 변동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27. [출제의도] 글에서 제시한 개념을 비교한다.

④ ㉠에서는 대손이 발생한 시점에 곧바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지만, ㉡에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금액을 추정하여 대손추산금 계정을 설정한 후, 이후에 대손이 발생한 시점에는 그 금액을 대손추산금 계정에서 중당한다.

[오답풀이]

① ㉠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전기 매출수익에 대응시키지 않는다. ② ㉡에서는 기말에 대손추산액과 대손추산금 수정 전 잔액을 비교하고, 대손추산액이 수정 전 잔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대손상각비 계정이, 작으면 그 차액만큼 대손추산금환입 계정이 늘어난다. ③ ㉠은 대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손상각비 계정에서 손실을 반영하며, 별도의 대손추산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만을 올바른 대손 처리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손발생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을 사용한 대손 처리도 허용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③ <보기>에 따르면 C사의 전기 대손발생액이 1,000만 원,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100,000만 원,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300,000만 원, 대손추산금 수정 전 기말 잔액이 1,000만 원이다. C사는 매출채권잔액비율법을 사용하므로, 먼저 대손율과 대손추산액을 구해야 한다. 대손율은 전기 대손발생액을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C사의 대손율은 1%가 된다. 대손추산액은 전기 매출채권 기말 잔액에 대손율을 곱한 것으로, C사의 전기 대손추산액은 3,000만 원이다. 전기 대손추산액이 <보기>에 주어진 전기 대손추산금 수정 전 기말 잔액인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많기 때문에 2,000만 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한다. 한편 C사는 대손상각비를 전기 매출 수익에 반영하는 추당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C사의 전기 매출수익은 감소할 것이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① 먼저 대손율이 100%인 매출채권은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추산금 수정 전에 대손처리 해준다. 그러므로 Y 은행의 대손추산금 수정 전 잔액은 260,000원이 된다. Y 은행의 대손율은 <보기>에 주어진 기간별 대손추산액의 총계에서 대손율이 100%인 매출채권을 제외한 185,000원이다. Y 은행은 추당금을 적립할 때 별도의 은행감독 규정을 따르므로, 전기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손추산금 수정 후 잔액과 은행감독 규정의 기준을 비교해야 한다. 먼저 전기 대손추산액을 전기 대손추산금 수정 전 잔액에서 빼면 대손추산금 수정 후 잔액은 75,000원이 된다. 한편, 은행감독 규정의 기준은 은행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최소적립기준과 기대손실 중 더 높은 금액인 최소적립기준 100,000원으로 한다. Y 은행의 대손추산금 수정 후 잔액이 최소적립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대손준비금 25,000원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Y 은행의 전기 대손상각비는 25,000원이다.

[오답풀이]

② Y 은행은 경과기간분석법을 사용해서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대손 가능성을 다르게 추정하는 개념법을 적용한다. ③ Y 은행의 대손추산금 수정 후 잔액은 75,000원이므로 은행감독 규정의 기준은 최소적립기준인 100,000원이기 때문에 기말에 적립해야 하는 대손추산금은

25,000원이다. ④ Y 은행이 추당금을 적립할 때 은행감독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전기 대손추산액이 대손추산금 수정 전 잔액보다 작기 때문에 대손추산금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고, 그 차액만큼 대손추산금환입이 발생한다. ⑤ 경과기간이 1년 초과인 매출채권의 대손율은 100%로 대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손추산금 잔액을 수정하기 전에 대손처리 해줘야 한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

④ '추정(推定)'은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의 의미이므로 실측과 연관된 '제다'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간주(看做)'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가다.'라는 의미이므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바꿔 쓴 것은 적절하다. ② '충당(充當)'하다는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우다.'라는 의미이므로 '충당함'을 '메울'로 바꿔 쓴 것은 적절하다. ③ '회수(回收)'하다는 '도로 거두어들이다.'라는 의미이므로 '회수하지'를 '거두어들이지'로 바꿔 쓴 것은 적절하다. ⑤ '마련하다'는 '헤아려서 갖추다'라는 의미이므로 '마련해'를 '갖추어'로 바꿔 쓴 것은 적절하다.

[31-33] 문학(고전소설) 서경주, '무등을 보며'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원제 저문: 수능 특강 85쪽)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가)의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비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이라고 한 것을 통해 화자는 '산'의 모습을 원경의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을 뿐,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무상감을 밝히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②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여름' 등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산'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은은히 울러오는 종소리'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메마른 입술'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제시하여 화자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1연과 7연은 유사한 문장 구조로 제시되어 수미상관을 이루며 화자가 변화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가릴 수 없으랴'를 통해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타고난 품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32.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① 가난과 같은 외부의 환경도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가자야 다 가릴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화자는 외부의 물질적 한계를 이겨 낼 타고난 선천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①번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오후의 때'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더러는 앉고 /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라고 한 것은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이지만, 기원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상실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고목에 못 박힌 두 기대'에서 '홀로 긴 밤'을 울었던 것은 화자가 처신 상황과 앞날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것이지만 자신의 이상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 가락을 더듬'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다시 떠올리기 위함은 드러낸 것이지만 과거 추억으로 인한 애상에 젖은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가 산마루에 '홀로 서서 /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것은 고고하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염원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② <보기>에서 '공간을 통해 지향하는 세계를 나타낼 때에 화자는 공간 속 대상과 동화를 감행'한다고 하였다. (가)에서 화자가 '산'을 바라본 것은 '산'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거리감을 제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②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공간은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화자의 심정을 구체화하는 장치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가)에서 화자가 '산'을 바라본 것은 단순히 '산'을 시각적으로만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을 통해 교훈을 얻고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에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공간을 통해 내면세계를 나타낼 경우, 화자는 공간의 방향성을 토대로 자신의 염원을 발현'한다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가 '높으니 높은 산마루'라고 한 것은 공간을 수직적 방향성을 가졌다고 보아 고고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공간을 통해 '자신의 염원을 발현하며 삶에 대한 기쁨과 겸허한 태도를 내비'친다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가 '산마루'에서 보는 햇살이 '시월상당의 꿈'과 같다고 한 것은 긍정적 미래에 대한 감각과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에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공간을 통해 '자신의 염원을 발현하며 삶에 대한 기쁨과 겸허한 태도를 내비'친다고 하였다. (나)에서 평화로운 '산마루'라는 공간에서도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34-37] 문학(고전소설) 김시습, '남부주지'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④ '그곳에는 초목도 모래도 없고-낮이면 칠푼이 녹아내리고 밤이면 얼어붙었다.', '붉은 구름이 해를 덮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화성(火城)이 천리에 뻗어 있고 철산(鐵山)이 만 겹이나 둘러 있다.'와 같은 구체적 배경 묘사를 통해 남부주라는 비현실적 공간을 그려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여왕과 박생의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동일한 견해를 보여 주므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의 논평을 활용하여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비극적 결말을 통해 타신을 믿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기보다 탁월한 인물이 세계의 부조리에 의해 패배하고 있고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③ '붉은 구름이 해를 덮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면 뜨거운 칠푼을 마셔야 하는' 남부주의 혹독한 환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남부주의 극한의 외부 환경을 그리는 것일 뿐, 이를 통해 박생이 겪을 고난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요임금께서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중국 신화 속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남부주의 대왕이 박생에게 왕위를 선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남부주의 대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박생을 남부주의 왕으로 선위한다며 박생이 왕이 될 필연성을 언급하며 기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남부주의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납다'며 백성들의 나쁜 풍속을 언급하여 박생이 왕위 계승 후 '그들을 간사함을 판단하고 위엄을 가지고 교화'시켜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박생이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고 남다른 재질을 갖추었다'며 그의 인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박생이 남부주의 왕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작품 속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④ ⑥은 '삼한의 흥망'에 대해 문답을 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올바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⑥에서는 인간 세상의 일을 설명하고 있을 뿐, 박생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⑥에서는 이를 뉘우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⑥에서 박생은 자신의 죽을 날을 예감했기에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⑥에서 박생이 실현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⑥에서는 대왕과 박생의 문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 일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서로 대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⑥에서 ⑥도 이동할 때에는 현실 도피나 현실에 대한 회의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④ 박생이 '병에 걸리자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던 것은 꿈에서의 체험 때문이다. 또한 한문단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꿈에 대한 체험을 기억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인지는 염타대왕이 되기 위한 죽음의 과정일 뿐, 관료직에 대한 미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염왕이 박생에게 '마침표 도덕과 예법으로 백성을 다스려' 주길 청하는 것은 덕치와 민본주의에 입각한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염왕이 '덕이 없이는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고 한 것은 유가적 명분을 거스르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박생이 '남다른 재질을 갖추었지만' '살아 있을 때에는 비록 높은 벼슬을 못 하였'다는 것은 뛰어난 선비가 때를 만나지 못해 불우함을 겪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박생이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큰 난리가 여러 번 일어나도 임금은 백성을 억눌러 다스렸'다는 것은 역대 제왕의 정치에 있어서 모순된 정치로 인한 당대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40] 문학(고전시가) 향인지, '청산은 내 뜻이오' / 작자 미상, '나무도 바히들도 업스' (연계 지문: 수능 특강 52쪽) / 권호문, '한겨울밤곡'

38.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을 파악한다.

② (가)의 '초장', (나)의 중장, (다)의 중장 '노도 일코~지도 싸지고'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리듬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다)에서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다)에서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다)에서 자연적 공간이 암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화자의 현재적 위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삶의 태도를 드러내기에 용이하다. ⑤ (나), (다)에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작품 속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③ (가)의 '늑수'와 (나)의 '가도리'를 의인화하여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할 수는 있으나, 화자에게 갖는 일의 그리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청산'은 '늑수'의 홀로감과 대비하여 '내 뜻'의 변함없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외'는 '나무도 바히들도' 없는 불모성을 통해 '가도리'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는 '청산'과 '늑수'에 각각 화자와 임을 비유하여, (나)는 '가도리'인, '도사공 안'과 '내 안'을 비교하여 임과 이별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는 '우리 예이 가는고'의 정감적 심상을 통해 '늑수'의 애절함을, (나)는 '기머 어둑'의 시각적 심상을 통해 '도사공'의 막막함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⑤ 종장에서 '빈천거를 호으리라'로 운신의 폭을 절제한 화자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라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치'해야 하는 상황하기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초장의 '지군택민'은 벼슬길에 나아가 선비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의를 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초장의 '조월경운'은 혼탁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자연에 은거하는 유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중장의 '명철군자'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따라 '출처'를 결정하므로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종장에서 '부귀'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화자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출'을 선택한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41-45] 문학(갈래복합)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연계 지문: 수능 특강 15쪽) / 함세덕 '등승'

4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의 파악한다.

④ (가)의 '이장은 민 씨를 홀가득 노려보았다.'에서 이장의 행동을 통해, (나)의 절을 떠나기 전 도념이 '부름을 끊고'에서 주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도념의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④번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이 저승이 뉘 앞에서 눈꺼귀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뿜뿜 질러쌌노. 도시에서 쫓따 땅해가이고 귀농을 했시도 얹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등과 같은 부분과 (나)의 '다디리'에서 방인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나)에서 특정 인물이 과장된 행동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지문 전체에서도 회귀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외면사보살 내면어자(外面似菩薩 內面如夜叉)'라는 경문을 인용하여 주지가 자신의 의견에 신빙성을 얻고자 하지만, (가)에서는 특정한 문구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⑤ (가)는 (종락)을 전후로 켈기 대화 및 이야기를 하는 장면과 민 씨와 황만근이 이야기하는 장면만이 제시되었고, (나)는 (종락)을 전후로 주지와 도념이 이야기하는 장면과 초부의 도념이 이야기하는 장면만 제시될 뿐, 빈번한 장면이 교차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이 긴박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② 이장은 민 씨에게 '김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라고 반문하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밝히는 등 문제 상황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만 보일 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 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②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민 씨는 이장에게 '따지는 어조가 되어' 말을 이어나가며 '이장이 켈기 대화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넨단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민 씨가 이장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따지가 '뉘 앞에서 눈꺼귀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뿜뿜' 지르며 '동네 사람 시키 줄까 말까 한테'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이장은 자신의 지위(이장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민 씨의 기세를 억눌러 통제하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주지가 '외면사보살 내면어자'라는 경문의 뜻까지 풀어서 도념의 어머니를 평가한 것은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도념의 심경을 꺾고자 한 것이기에 적절하다. ⑤ 꿈에서까지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도념이 절을 떠나 마을로 향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계기가 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③ 농민 켈기 대화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끌고 가자는 투쟁 방침이 있었지만 이장과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한 것을 통해, '농민 켈기 대화'는 방침에 따른 성공한 대회가 아닌 형식적 대회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번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장이 대회가 진행되는 날 비가 오고 국도에는 차들이 뿔뿔 단뿔했다고 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농민 켈기 대화의 실제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장이 동네 이장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행사장에 간 것은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이지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것은 아니며, 동네 이장과 함께 트럭을 탔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이장은 사람들이 모여 몇 분 소리만 지르다 왔다고 말하며 농민 켈기 대회가 호지부지하게 끝난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 뿐, 농민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이들이 농가 부채를 야기한 것도 아니다. ⑤ 농민 켈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 안되는 것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장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③ <보기>에서 지시문은 '인물의 몸짓이나 무대의 효과'를 설명해 '인물의 내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B]에서 무대 조명을 사용해 절자 어두워지는 효과를 제시한 것은 날이 저무는 시간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 도념의 고뇌가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므로 ③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회곡은 '대사나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관객이 인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였다. [A]에서 어머니에 대한 논제로 도념과 주지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 두 인물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지시문은 '인물의 몸짓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여' 인물의 내면을 부각시킨다고 하였다. [B]에서 초부의 시선이 도념을 향하도록 지시한 것과 도념의 외형을 보고 초부가 한 행동을 통해, 관객은 도념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독백은 상대적 없이 배우 혼자 말하는 행위로, 관객에게 배우가 가진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하였다. [C]에서 주지를 향한 도념의 독백은 관객이 도념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지시문은 '배우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장치로, 작중 분위기와 인물의 내면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주지의 독경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발을 멈춰 산문 앞에 갖을 두는 도념의 구체적인 행동은 관객이 그의 내면을 유추하게 하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① <보기>에서 '이질적 교감'은 '인물의 생각-외형-이미지 등에서 이질성을 발견하여 그 인물의 내면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에서 민 씨가 황만근의 별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다른 질문을 한 것은 새로운 화제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지만 그에게서 이질성을 찾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이질적 교감'은 '인물에서 나타난 이질성을 발견한 후, 그 인물과 교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가)에서 황만근에게 궁금한 점이 생겨 술을 마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교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이질적 교감'은 '인물의 생각-외형-이미지 등에서 이질성을 발견하여 그 인물의 내면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 씨가 황만근의 외형을 바라보고 '갑자기 재미있게 여긴 것은 황만근에게서 이질성을 느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이해자 교감'은 '인물의 주제적 의지에 이해자가 관심과 동조를 보이며 진행'된다고 하였다. (나)에서 도념의 선택을 초부가 인정하면서 그를 존중해주는 모습은 이해적 교감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이해자 교감'은 '인물에 대한 이해자의 공감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인물의 내적 성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초부가 바깥을 걸친 도념을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이질적인 측면에서 발견된 이질적 교감이며, 초부가 절을 떠나는 도념을 보며 걱정하는 것은 도념의 의지에 대한 관심과 공감적 인식을 드러내는 이해적 교감이라고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